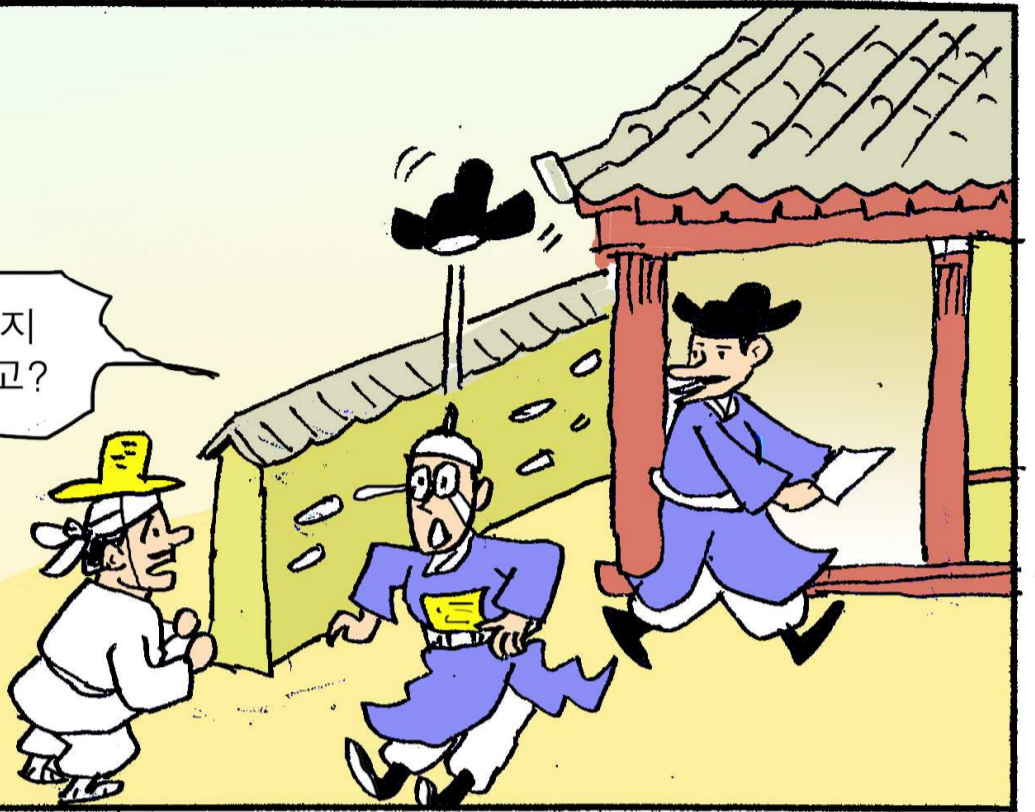


14. 지극한 효성(37세)

1537년(중종 32년)
10월에 어머니가
돌아가셨다.

눈 감으실 때까지
나를 찾으셨다고?

에 나으리.



퇴계는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황급히 고향으로
돌아왔다.

어머니이~~~~!



제가 과거를 보아
벼슬살이를 시작한 것은
이 모두가 어머니를 잘
모시고자 한 일 아닌가요.



이제 일도 자리가 잡혀 어머니를
잘 봉양하려 했는데... 이렇게
가시다니 제 가슴이 더
찢어집니다!



이때 어머니는 68세였다.

불효자는 읍니다.
어흐흐흑!



